

연천군 2020년 도시기본계획案

연천·전곡·백학·신서·은대 등 5개 생활권 개발



연천군은 점경지역의 특성을 감안, 비무장지대(DMZ)~천덕산~고대산~소요산의 녹지축과 임진강~한탄강~영평천 등 수변지역을 잇는 녹지체계를 마련해 레저와 관광이 혼합된 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연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마련돼 이르면 2006년부터 접경(接境)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될 전망이다. 연천군은 계획인구가 15만명(현재 5만여명)이 될 2020년을 상정한

계획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까지 도(道)와 건설교통부의 승인, 관리 계획 수립절차를 마친 뒤, 2006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통일을 준비하는 환경

친화적 도·농복합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연천(행정서비스) ▶전곡(산업중심기능) ▶백학(과주 LCD단지 유치로 산업중심) ▶신서(관광·위락시설 및 대북 물류기지 건설) ▶은대(대학유치 및 신도시 조성) 등 5개 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학 2곳, 초·중·고교 36곳이 새로 세워지며, ▶경원선 연천구간 전철화 및 역세권 주변의 환승시설 계획 ▶국도 3호선과 37호선의 우회도로 개설 ▶군남~신서간 도로 신설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등 교통망 확충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특히 점경지역의 특성을 감안, 비무장지대(DMZ)~천덕산~고대산~소요산의 녹지축과 임진강~한탄강~영평천 등 수변지역을 잇는 녹지체계를 마련해 레저와 관광이 혼합된 휴식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양주경찰서 유공경찰관 특진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는 지난 12일 서정실에서 각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유공경찰관 특진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특진대상자 김대석 경장은 지난 2001년 7월 경찰에 입문하여 아직까지 새내기 모습에 가시지는 않았지만 사건 앞에서는 물불

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형사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달 26일 동두천 시 생연동에서 발생한 오락실 강도상해사건 관련하여 끈질긴 잠복과 추적으로 사건 발생 6일만에 피의자 4명을 모두 검거하는 유공을 세워 1계급 특진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는 지난 12일 서정실에서 각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유공경찰관 특진임용식을 가졌다.

양주경찰서 여직원회 아동보호시설 방문 이웃사랑 실천 앞장 사회의 귀감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 여직원 모임은 지난 13일 오후 1시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아동보호센터(舊 어린목자의 집·장 황노학)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아동보호센터를 찾은 여직원회는 시설관리자로부터 시설소개와 주의사항 등을 소개받은 후 원생들과의 장기자랑, 발야구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방문봉사활동을 다녀온 강영정 경장(민원실 근무)은 "아이들

을 통해 더욱 맑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보호시설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여직원회는 지난 8월부터 부모의 교통사고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덕정 초등학교 학생 2명에게 매월 급식비를 남몰래 지원해 주는 등 쉽지 않은 이웃 사랑을 펼치고 있어 지역 사회 및 경찰 내부에서도 귀감이 되고 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 여직원 모임은 지난 13일 오후 1시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아동보호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동두천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오는 12월3일 오후 2시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청취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분석하게 된다.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시민은 의견요지를 공청회 개최전에 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청회 개최일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도시과 ☎031-860-2352, 235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포도뉴스



한미 우호의 밤 축제

동두천시 지난 11일 보산동 관광특구에서 한·미 문화의 광장 준공을 기념하여 한·미 우호의 밤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보산동 관광특구의 이미지 재정립 및 지역발전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보산동 429번지 일대에 광장 3천 938㎡ 규모의 야외무대, 분수대 등을 조성하게 되어 준공기념으로 마련 된 것이다.

이날 축제에는 손학규 경기도시와 엔더스 미2사단 부사단장이 참석하고 시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김장담그기, 노래자랑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신효범과 사랑과 평화의 공연무대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7시20분에는 관광특구의 하늘을 수놓은 불꽃놀이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제41회 경우회날 기념식

재향경우회동두천지부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중앙동 웨딩코리아에서 최용수 시장, 경찰서장, 시의장, 시의원, 경우회

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대한민국 경우회날 기념식을 가졌다.



제5회 학생 동아리 종합발표회

경기도교육청 주최 동두천 정보산업고등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제5회 경기도 학생동아리 종합발표회가 지난 19일 오

전 10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민속반 공연등 8개 동아리 공연 발표회를 가졌다

사건/사고

주부도박단 검거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는 지난 11일 새벽 4시쯤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유원지 내 가든 비빌하우스에서 판돈 약 1억여 원을 걸고 삼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원금희씨(가명, 50세 여) 등 41명을 검거했다. 양주경찰서는 이날 검거된 이들은 이른바 쟁개사개(도리지꾸 팽 변형)라는 도박판을 벌여왔고 검거자 23명은 도박판과 함께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도주한 도박장 개설자 1명을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식점에서 1판에 300만원씩 모두 8천5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짓고팽'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1시께 고양시 지하철 삼송역에 모여 함께 도박장으로 이동했으며 도박장 진입로에 경비를 세우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우스 전체에 커튼을 달아 경찰 검거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삼습도박 전과가 있는 원씨 등 주부 16명과 김씨 등 도박장 모집책 7명 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8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역대 도박단 검거

산속 비빌하우스 음식점을 빌린 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역대 도박판을 벌인 주부도박단 41여명이 검거됐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역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삼습 도박)로 원모(50)씨 등 주부 30명과 김모(44)씨 등 모집책 1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달아난 도박장 총책 포모(45.부천시 원미구)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오전 2시부터 2시간30분여 동안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야산 음

노숙자 숨진 채 발견

지난 13일 오후 2시쯤 양주시 남방동 농지에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사체를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자는 168cm 키의 마른 체격에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외상은 없으며 변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점퍼 2장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노숙을 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변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연천에 골프장 조성

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주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주) 덕수수력(강원도 정선)은 소유하고 있는 전곡읍 고능리 산 39-2번지 일대 12필지 22만7천472㎡ 부지에 9홀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 3월 연천군에 제출했다.

연천군은 지난 4월 골프장조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자 군관리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7월 제안자의 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연천지역 골프장 조성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이 들어서도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고능리 일대를 체육시설로 등록한 후 농지전용, 산림훼손, 건축 등의 허가절차를 추진하고 골프장사업승인을 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오래전부터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면서"그런데 지역 개발에 다소 송통을 틀 수 있는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5만 군민과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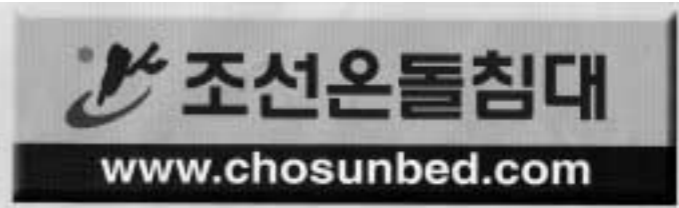
백성주기자 paek1031@freechal.com

머리쪽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맥파를 조선온돌침대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세계 제일의 침대를 만들어가는 기업



- 뉴블루밍 7122
- 원색기름유선: 유봉선, 보성명반석, 청명반석, 후유석, 황도명반석
- 보로름선1 (오베가름드): 특수슬라이드조절기+천연가죽/엔디사일링단마감(가격 560만)
- 보로름선2 (SA등급): 일반사각조절기+천연가죽/엔디사일링단마감(가격 510만)
- 보로름선3 (A등급): 일반사각조절기+사무드가죽(가격 460만)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312-1 송우가구단지 TEL : 031)541-6114 H·P : 011-354-6485 대표 : 양주승